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 논의의 경계 확장: 경제학 사례¹⁾

황희영 (영산대학교 국제무역학과)(경제경영 2-4)

요약

기독교 학문은 어떤 학문의 영역에 대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일관되고 체계적인 인식과 해석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기독교 세계관의 논의와 활동은 당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기독교 학문의 발전이 지체되거나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졌다. 여러 전문 영역에 있는 학자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 학문을 수립하고 그 경계를 넓히고 또 일반 대중에 대한 커뮤니케이터들의 역할로 기독교 세계관이 세상에 주는 영향이 커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키워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학문, 기독교 경제학, 성경적 커뮤니케이션

1) 본고는 draft 버전이므로 인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I. 기독교 세계관 논의와 학문 활동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둘러싼 세계, 즉 사물과 사회에 대해 그것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활동에서 작용하는 그 중심 틀을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논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두고 기독교의 관점에서 봄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해석과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²⁾. 특히 생명이나 윤리에 관한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더욱 크다. 이와 같은 격차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세계관의 기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으로 제시되느냐의 여부에 따른 것이며 또한 성경의 기준과 가르침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이나 가르침에 비해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 공동체 내에서 세계관의 차이에 따른 인식의 격차를 내버려두기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격차를 좁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약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인식의 차이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삶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학문 활동을 하는 것은 실용적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서 이론과 실제적 분석 및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아울러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학문 활동은 해당 분야에서 상당히 심층적이며 포괄적인 인식과 해석의 체계가 있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설득력을 발휘한다. 그 힘은 학문의 내적 정합성으로부터 오는데, Holmes(1983) 역시 그의 서문에서 “기독교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그 세계관의 전반적인 정합성과 사람과의 관련성에서의 타당성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쓰고 있다³⁾.

그런데 지금까지의 기독교 세계관 논의와 학문 활동을 보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비록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과 열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본고에서는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 오히려 그 경계를 확장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독교 세계관의 의의

이승구(2003)는 세계관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하면서 그것이 세계를 보는 눈 또는 관점으로서 신념의 틀, 지각의 틀, 인지 방식, 삶에 대한 시각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⁴⁾. 그는 이어서 세계관이 때로는 의식 상태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의식되지 않은 일상적 삶의 기저에 있기도 하며 사람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이론이나 학문과 같은 엄격하고 심각한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전(前)단계적 특징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⁵⁾.

2) 여기서의 해석의 의미는 좁은 개념에서 분석과 이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인식으로부터 분석, 의미부여, 의사결정 등의 전반적인 것이다.

3) Holmes (1983), 6-7쪽.

4) 이승구(2003), 13-14쪽.

위와 같은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로 믿고 시인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세계관이라고 정의한다면 기독교 세계관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인식과 의사결정 등에 미치는 기본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의 하나님 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정의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 세상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재림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적 공간에 있다. 따라서 이 세상이 타락한 인간의 죄와 허물로 불완전한 공간임을 인정한다. 셋째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며 영적 세계에는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사탄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로써 선과 악이 존재하는데, 그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이라는 가치를 택해야 하는 당위가 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회 현상을 보았을 때 만약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나설 때 기독교 세계관은 실천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타락한 세상의 불완전함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타락한 속성이 시너지를 일으켜 세상은 급격하게 악한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질지도 모른다. Kuyper(1991)는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인간의 죄와 허물에서 비롯된다고 하며 19세기 말의 사회적 위기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그것도 개혁적으로 대응해야만 할 것을 주장했다⁶⁾. 인간은 살아 숨 쉬는 동안에는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사고하며 그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각 영역에서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사회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만약 기독교 세계관과 그것에 매우 대립적인 세계관이 서로 충돌한다면 어느 것이 수용되느냐에 의해 공동체 구성원이 받게 될 결과는 심대한 차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 현상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한지 알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가르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 논의와 활동은 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행하여져 왔다. 그래서 사회의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학문적 기초 위에 성경적인 관점을 더했기 때문에 ‘기독교 학문’을 해온 것이다.

2. 기독교 학문(Christian Scholarship)의 역할

기독교 학문은 그 자체가 학문으로서 그 기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학문은 인간, 사회 혹은 자연 현상의 관찰 및 기술에 있어 일관된 체계적인 구조와 내재적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명제들로써 설명 또는 예측한다. 기독교 학문은 이 맥락에서 볼 때 인간, 사회 혹은 자연 현상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는 현상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어떻게 성경과 정합적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어떤 현상이 학문에 의해 설명되

5) *ibid.* 14-16쪽.

6) Kuyper(1991), 32-33, 85-87쪽.

고 이해되는 것은 학문 그 자체가 가진 내적 정합성에 의한 것이며 정합성은 인과 관계나 반복된 패턴의 안정성 등에서 온다. 이런 점에서 또한 학문은 수용되거나 비판된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이 다루는 대상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체계적으로 증거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 충분하게 제시되어야만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의미에서의 기독교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사회와 자연 현상의 해석이 때로는 매우 분명할 때가 있으나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것은 주어진 현상에 대해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느 정도로 드러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성적 취향의 선택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하지만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 IMF 위기가 왔을 때 그 원인과 처방을 두고 경제학자들은 일치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고, 기독교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단순한 금융상의 문제로 보는 시각으로부터 탐욕이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견해까지 다양했다.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인식과 해석의 다양성은 단지 각 사람마다 자신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드러난 가르침을 찾지 못하거나 혹은 현상 자체가 내포한 복잡성 때문에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갈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수용해달라고 요구할 때 현상의 복잡성은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볼 때 환경 문제, 개발 문제, 교육 문제 등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일관된 인식과 해석을 내놓기 보다는 오히려 분열되어 있으며 기독교 학문을 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분열되어 있다.

이 분열은 다양성이라기보다는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이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므로 분열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의 대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의 이슈에 대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 주도적으로 몰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약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것이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논의와 그를 뒷받침하는 기독교 학문의 발전에 한계점을 제공하고 있다.

3.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 논의와 기독교 학문의 한계

(1) 세계관 충돌과 이슈 중심의 대응

한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라 구성원들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해 많은 악이 존재하는 곳임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정책결정자의 손에 사회 문제가 들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한 결정들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관의 충돌은 주어진 사회 문제에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하여야 할 행위들이 아직은 유동적인 상태에 있을 때 더욱 치열하다.

우리 사회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충돌했는지 보려면 『신앙과 학문』, 『통합연구』, 『기독교사회윤리』 등과 같은 그리스도인 학자들 중심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의 제목을 보면 된다. 이것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듯하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발행된 기독교 학자들의 학술지인

Journal of ACE, Journal of Markets and Morality 등을 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 학문을 하는 경제학자로서 필자가 봤을 때 이와 같은 학술 활동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은 가지지 못했다. 독자의 수나 사회로부터의 반응을 볼 때 매우 한계적인 상황이라는 느낌이 훨씬 지배적이다. 왜 그런 것일까?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로,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지나치게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에 집중해 있고, 이슈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 정도로 이슈가 많아 소수의 문제에는 집중하지만 사회 전체의 문제를 주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그것은 같이 참여해야 할 성도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하는 데 대해 격려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둘째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신학 차원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말할 수는 있지만 사회 문제에 적용할 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이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이거나 세부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 반면 그리스도인 전문가(학자)들은 지식과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거나 훈련받지 못하였다.

셋째로 그리스도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기독교적 관점을 적용하느냐에 대해 모두 생각이 다르며 비록 신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적 원리에 대해 이해하는 바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사회 이슈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활동에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이기까지 한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성경의 존재 이유가 사회 이슈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 이슈를 이해하는 데 쓰일 수는 있지만 본래의 핵심이 되는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았으나 그 뒤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혼돈이 생겼을 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갈 3:17)”고 말한다. 이것을 우리의 논의의 배경으로 가져와서 추론하면 태초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뜻이 있는데, 21세기에 등장한 사회의 이슈가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으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태초부터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른 접근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이렇게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집중하는 것은 실제로 사회의 이슈가 너무 많고, 또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지나치게 이슈 중심으로만 대응하기 때문이며 그럴수록 더욱 문제는 악화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전문가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슈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욱 현상은 악화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일종의 딜레마 상황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신학자들로 하여금 사회 참여를 하거나 혹은 목회자들이 일반 성도 대중으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촉구한다고 하여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일도 아니라고 본다.

(2) 기독교 학문에 대한 오해 혹은 한계

그런데 위와 같은 현실적 한계와 어려움이 그리스도인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절대적 수가 모자라거나 그들이 무능하여 생긴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학문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서 생긴 일이라고 보며 그 오해가 진정한 기독교 학문의 성장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새로운 인식이 열린다면 머지않아 해결되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오해하였다는 것인가?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 학문은 신학이 아닌 인문사회과학, 공학과 자연과학 등을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원리를 자신의 학문 세계에 적용한 것을 일반적으로 일컫는다. 이러한 인식이 사실은 오해의 시작의 원인이다.

학문의 의미는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 현상 혹은 자연 현상에 대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명제들의 집합으로 된 설명 및 예측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경제학을 예로 들면 경제학자는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과 처방에 대한 설명 등을 내놓는다. 심리학자는 인터넷 중독 현상에 대해 원인과 처방을 제시한다. 그런데 경제학자든 혹은 누구이든 신실한 그리스도인 학자라면 하나님을 알고 동시에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며 이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그 당시의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응하면 자신의 학문 전체 영역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사회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의 관점이 무엇인지 '적용'한 것이지 학문은 아니다. 경제나 정치와 같은 한 영역의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이 있지만 이슈로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성경적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이 많은데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드러난 이슈 중심의 해석은 기독교 세계관의 '논의(discussion)'는 되지만 기독교 학문(discipline)은 될 수 없다.

기독교 학문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의 큰 보편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총체적인 성경적인 중심 원리와 명제, 설명 및 예측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사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 경제학자가 IMF 경제위기에 대해 성경은 빛 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에서 나온, 앞서 말한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한 대응이지만 역의 명제로서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빛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기독교 경제학의 중심 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건전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많은 논의를 해 왔지만 그것이 꼭 기독교 학문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기독교 학문은 주어진 학문 분야에서 총체적인 틀에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학문이 되어야 한다. 결코 성경의 부분적인 해석만으로 학문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3) 기독교 경제학의 사례

위에서 우리가 제시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학술적 논의 및 활동과 기독교 학문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을 경제학을 예로 들어 보자. 경제학은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부의 창출과 분배가 국가 및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에 관한 학문이다. 기독교 경제학은 이러한 중심적인 문제의식(주제)이 성경적인 원리 위에서 종합되어야만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성경 말씀이 부에 대해, 부의 창출 과정에 대해, 부의 축적과 소비에 대해, 부의 이동과 분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전반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기독교 경제학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부의 창출 과정에서 자원의 사용에 대해 흔히 말하는 희소성의 원리에 대응하는 성경적 원리가 크게 논의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생산과 소비 주체의 경제 활동 동기에 대해 이윤극대화나 효용극대화의 논리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대답하기가 궁색하다. 이것은 단지 일부의 사례일 뿐 경제학이 다루는 거의 전 영역에서 성경적인 원리는 단지 몇 줄의 성경 구절만으로 대체될 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제의 전체 영역에 대해 일관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런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논의에서 빈곤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빈곤은 당장 끼니를 잇기 어려운 사람들의 절박한 문제이므로 매우 심각한 이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및 이방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빈곤 문제가 경제학의 가장 중심이 아니듯이 기독교 경제학의 중심도 아니다. 이것은 단지 중요한 많은 이슈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빈곤은 사회의 시선을 쉽게 끄는 일종의 초점(focal point)에 불과하다. 기독교 경제학이 앞서 말한 학문의 성격을 가지려면 성경이 경제 전체 영역에 대해 말하는 일관되고 반복된 인식 및 해석의 체계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빈곤, 즉 부의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다루려면 성경에서 매우 일관되고 반복된 빈곤의 문제를 찾아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의 논의에서 빈곤에 관한 이슈는 최빈국에 대한 경제 원조와 원조의 효율성, 한 국가 내에서의 빈부의 격차를 좁히는 경제 정책 및 정책의 개발 등이 중심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원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상존하고 있는 점, 빈부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화되는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슈를 삼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두가 풍요롭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결과로 엄청난 기근(국가적 빈곤)과 전쟁으로 인한 황폐함을 묘사하고 있다. 예언서 전체는 국가적 차원의 빈곤과 황폐함이 우상숭배와 지도자들의 탐욕 등으로 인한 결과임을 매우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빈곤의 원인은 우상숭배와 불의의 결과라는 것이 빈곤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다. 이 설명 체계는 기독교 세계관에 충실한 많은 경제 원조 기관들이 빈곤이라는 결과(있)에는 반응을 했지만 원인(뿌리)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빈곤이 상존한다고 추론하도록 이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한다. 경제적 원조나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복음(성경)의 중심 요소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지 돈을 주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라고 하셨지만 그 이전에 사랑으로 행하여야 한

다고 하셨다. 가난한 자들을 직접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물질의 공급처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빵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마음의 중심의 한계를 알고 계셨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초점(focal point)은 베푸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사람들의 초점은 즉시적이고 즉물적인 빈곤의 해결(빵)에 있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 원조에 매달렸을지도 모른다. 기독교 경제학이 학문의 체계를 갖춘다면 빈곤의 문제는 매우 작은 지역적인 이슈일 뿐이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훨씬 본질적인 학문적인 주제이다⁷⁾.

고영근(2011)은 현재 한국의 정치인들이 다음 대선을 위해 복지국가의 이슈를 던지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진보적 개혁 신학자들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적 보편적 복지의 원리는 보편적인 토지 기반에서 나온다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원리라고 주장한다. 복지국가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를 성경에서 찾아내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에서 복지의 본질적 기초는 보편적 토지의 개념 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에 의하면 진보적 개혁 신학자들이 이슈 중심의 대응에 집중함으로써 성경 전체의 본질을 왜곡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Chewning(1989)은 서문에서 성경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 어떤 경제 시스템을 지지하는지 스스로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질문이 그의 책 제목과는 정반대로 기독교 경제학에 기초도 아니며 게다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 견해는 같은 책에서 Pierard(1989)가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Pierard에 의하면 성경으로부터 경제 시스템을 추론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를 논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말한다⁸⁾. 이 책이 출간되던 때인 1980년대 말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같은 세계적 이슈를 다룰 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한가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성경적 이해를 구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기독교 경제학의 학문의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특정 경제 시스템의 우월성을 논의하기 위해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문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립하려면 사회적 이슈가 선행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합당한 근거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인간과 사회 및 자연에 대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를 궁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들에게 맡겨줄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지금부터 정당한 의미에서 기독교 학문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과 가치관의 충돌에 대해 학자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II. 기독교 학문의 정립과 경계의 확장

1. 기독교 학문을 정립하기 위해 메워야 하는 간격들

7) 황희영(2009).

8) Pierard (1989), pp. 72-73.

당시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는 방식의 기독교 세계관 논의 및 기독교 학문이 아니라 인간, 사회와 자연 영역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총체적인 관점에서 학문을 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행하여야 할 일이 성경을 깊이 있게 다시 읽고 묵상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살아가는 원리를 성경 말씀 속에 가르치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는다. 따라서 그 중심 원리의 파악이 일관되고 체계화된 인식 및 해석의 틀의 시작이다. 묵상이 없이는 기독교 학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 Trinity Christian College의 신학 교수인 Donald Sinnema 박사는 기독교 학자들이 성경을 참고로 하여 학문적 지식과 정보를 체계화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성경은 구속적(redemptive) 목적을 위한 책이며 특정한 학문에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피조된 현실로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과학이 실제로 어떻게 학문으로서 정립되고 기능하는지 모르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현상이든 혹은 자연 현상이든 피조된 세계에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세계관은 크고 작은 신념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즉 사회 및 자연의 현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인 과정이 아니라 관찰자의 관점(viewpoint)이라는 주관적 필터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 필터는 가설 혹은 명제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물질은 분자의 결합이며 분자는 다시 원자 혹은 그 보다 더 작은 요소로 분해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보면 단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을 이해하는 데 사용된 가설이다. 이 가설은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리처럼 보일지 모르나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이론에 의하면 도태되기 직전에 있다.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일종의 가설이다. 그러나 모든 경제 분석에는 이것이 진리처럼 등장한다. 학문은 일정 기간 동안 지배적인 가설 체계가 존재함으로써 서로 인식과 해석 체계를 공유하는 공간이며 이것이 변화한다고 하는 것이 토마스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이 의미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조된 (created) ‘현실(reality)’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는 가설 위에 세워진 신기루 같은 허상(illusion)일 가능성이 높다⁹⁾.

피조된 세계에서 정보와 지식을 찾는다는 것은 일정한 인식의 틀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학문의 세계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간이므로 이들이 공유하는 공통 언어를 사용한 지식의 추구는 사회와 자연 현상에 포함된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로 배제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자신의 성경적인 가설체계를 별도로 가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과 동일한 언어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낼 방법이 막혀있다. 또 다시 경제학의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요로움과 주류 경제학의 가설체계인 자원의 희소성과 경쟁의 원리가 서로 동일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겠는가.

따라서 Sinnema 박사의 주장처럼 만약 기독교 학자들이 피조된 현실에만 집중하여 기존의 학문 체계의 언어에 충실하면 성경에 나타난 일관되고 체계적인 하나님의 뜻을 포함시킬 수 있는 학문 체계의 성립은 양립되지 않는 일이다. 피조된 현실 세계에서 정보와 지식을 찾도록

9)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와 그를 뒷받침하는 신고전학파적 경제 이론 체계 역시 현실이 아니라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은 기독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 년센스다. 아무리 성경적 기초와 신학적 윤리의 원리들을 성경에서 찾았다 하더라도 경제 현상への 적용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해석에 머무르거나¹⁰⁾, 빈곤 문제 혹은 거시 경제 정책 등과 같은 이슈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¹¹⁾.

비록 우리가 심리학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Myers and Jeeves (1987)에서 동일한 불완전함이 드러나 있다. 그들이 기독 심리학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하나 현재의 학문적 언어로서는 성령을 바르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인간의 존재와 인격 및 삶에 영향을 주는 지 한 마디도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심리학은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가장 심도 깊은 학문인데 성경은 창세기에서 인간이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들이 『신앙의 눈으로 본 심리학』을 하고 싶고 신앙과 과학의 연결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적 요소를 담아낼 그릇이 없다. 이것은 매우 심대한 한계이며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 보았을 때 진정한 기독 학문의 방향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피조된 세계에서만 지식과 정보를 찾고자 한다면 기독 학문은 경제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조차 언급하지 못하는 불구의 학문이 되고 만다.

2. 기독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 논의의 경계의 확장

그렇다면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기독 학문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학자들의 전유물인가? 아니다. 하나님은 신학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학적 체계 위에서만 설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학문은 인식과 해석이 일관되고 체계화된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과 여타 학문의 체계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기독 학문에 대해 너무 기초가 없는 상태이므로 우선 성경 자체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부와 경영이 무엇인지, 또는 정치는 무엇인지 찾고 논의하여야 한다. 기존의 학문 체계와 언어는 잊어 버려도 좋을 것이다. 다만 다 버리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가 훈련받은 학자라면 무엇이 각 학문 영역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인지는 대체적으로 파악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신학자들과 작업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독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의 논의의 경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계를 확장하는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1) 기독 학문

기독 학문은 신학과 이슈 중심 기독교 세계관 논의의 중간 수준에서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인간, 사회 및 자연의 현상들에 대해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뜻이 무엇인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수준에서 다루어질 주제들은 성경으로부터 알 수 있는 중심 주제들로서 당시의 사회 현상이나 지엽적인 이슈보다 더 상위 개

10) Donald A. Hay (1989).

11) Victor V. Claar and Robin J. Klay (2007).

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개발된 개념들을 찾아 완전히 새로운 성경적 관점에서 발견된 요소들과 함께 재배열하는 등 재정립함으로써 다소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기독교 세계관 논의의 주제들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새로운 이슈들을 계발하여 사회 및 자연 현상에 관한 논의들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기독교 학문을 하는 그룹과 이슈 중심으로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접점에 서서 성경적 가치를 전파하는 그룹으로 나뉘어 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독교 학문을 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슈 중심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문의 발전이 지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상호 협조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Meeks(1989)는 비록 신학자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경제의 핵심을 가족관계(familyhood)와 먹고 사는 문제로 보고 하나님을 경제인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문제의식은 Polanyi(1977)와 매우 밀접하게 닿아 있는데 아무튼 그는 Polanyi와 같이 경제를 먹고 사는 것의 문제(livelihood)로 보고 그것을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매우 대안적이며 핵심적 명제를 던지고 있다. Henry George(1897)에 대해서는 부가 증가할 때 빈곤 역시 증가하는 역설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희년을 지켜 토지를 돌려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경제의 가장 본질적인 어려움, 즉 불순종에 의한 빈곤의 발생 개념으로 이해할 때 이 역시 기독교 학문으로서의 든든한 기초 위에 있다.

우리는 현대자본주의나 혹은 현대적 기업 경영을 먼저 전제로 하고 난 다음 그 가운데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참조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학문을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태초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경제에 대해 무슨 본질적인 뜻을 담고 있는지 탐색하는 근본적인 작업을 좀 더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여야 기독교 경제학이 학문으로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욱 전파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 출구 중의 하나로써 사회와 자연에 대한 성경적 인식에 갈증을 느끼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접점은 이미 열려 있다고 본다.

(2) 성경적 커뮤니케이션

기독교 세계관 논의의 중심이 주로 중요한 사회의 현상들에 대한 이슈라고 할 때 그 접점은 대체로 그리스도인 학자 또는 전문가 그룹과 세상의 가치를 반영하는 학자 또는 전문가 그룹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제한된 전문가 집단이 제한적인 공간에서 전문적 언어를 사용하여 교환하는 논의이므로 자연히 일반 대중에 대한 기독교 학자들의 접점은 매우 좁고 취약하다. 대중에 대한 접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경계의 확장은 성경적인 가치를 대중의 언어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커뮤니케이터란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을 매우 쉽고 친근한 언어로 대중들에게 설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예를 들면 C.S. Lewis는 대표적인 성경적 커뮤니케이터로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소설 중 『스크루태이프의 편지』나 『나니아 연대기』 등은 사탄의 존재와 활동, 그리고 예수님과 그에 의한 구원 또는 영적 전쟁의 개념을 시각적인 언어로 잘 그려내고 있다. 그의 작품은 마법의 이야기로 영적 세계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당시의 또 다른 작가의 도전에 대한 좋은 대응이었다. 또 이어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

으로』는 한 인간이 구원을 얻은 후에 어떻게 인간의 삶이 영적인 차원으로 확장 승화되어 체험되었는지를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기독 학문을 하는 학자가 아니듯이 모든 기독 학자들이 뛰어난 커뮤니케이터들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독 학자들의 심층적인 묵상과 통찰력이 좋은 커뮤니케이터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줄 것이며 좋은 커뮤니케이터들은 기독 학문이 활발해지도록 자극을 줄 것이다.

III. 결론

Kuyper(1991)가 말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해결책의 모색”¹²⁾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의 논의와 다르다. 그는 한 이슈(빈곤)에 대해 그것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 영적인 책임과 각성,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까지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¹³⁾. 그는 피상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독 경제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사회 문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 당시의 사회 현상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를 찾고 묵상하여 적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피상적인 성경 구절의 인용과 적용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반 대중에게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착오다. 성경의 몇 구절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사회 현상에 적용해보는 것은 개인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의미 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현대와 같이 복잡성이 높고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높고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다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성경에서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 그들에게 계대결혼의 의무가 율법으로 주어졌으나 그들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딜레마처럼 보이는 이슈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였다”¹⁴⁾라고 말씀했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먼저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연단을 받고 생각과 행실이 일치된 후에 그 후 학문으로 승화시켜 하나님의 법 자체를 전파하여야 비로소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학자 혹은 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신학, 기독 학문, 기독교 세계관 논의와 적용, 그리고 성경적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 활동의 경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는다.

12) Kuyper(1991), 23쪽.

13) Kuyper(1991), 4장.

14) 마태복음 22장 23-33절.

참고문헌

- 고영근(2011), 성서는 복지국가를 말씀하고 있는가: 희년은 자비를 뛰어넘어 정의를 요구한다, 언론과 토지의 정의: <http://landliberty.org/xe/letter2/27190>
- 이승구 (2003),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출판부.
- 황희영 (2009), “성경적 경제학의 재건축을 위한 인식 체계의 탐색,” 『신앙과 학문』, 14(1), 299-335.
- Claar, Victor V., and Klay, Robin J. (2007), *Economics in Christian Perspective: Theory, Policy and Life Choices*, IL: InterVarsity Press.
- Chewning, Richard C. (ed.) (1989), *Biblical Principles and Economics: The Foundations*, CO: Navpress.
- George, Henry (1897), *Progress and Poverty*, 김윤상 역(1997), 『진보와 빈곤』, 서울: 비봉출판사.
- Hay, Donald (1989), *Economics Today: A Christian Critique*,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전강수(외) 역(1996), 『현대 경제학과 창지기 윤리』, 서울: IVP.
- Holmes, Arthur F. (1983), *Contours of A World View: Studies in A Christian World View*, 이승구 역(1985), 『기독교 세계관』, 서울: 엠마오.
- Kuyper, Abraham (1991), *The Problem of Poverty*, edited by James W. Skillen, MI: Baker Books, 조계광 역(2005), 『기독교와 사회문제』, 서울: 생명의말씀사.
- Meeks, M. Douglas (1989), *God the Economist: the Doctrine of God and Political Economy*, 홍근수 이승무 역(1998), 『하느님의 경제학: 신론과 정치경제학』, 서울: 한울.
- Pierard, Richard V. (1989), No Economic System Flows Directly From Scripture, in *Biblical Principles and Economics: The Foundations*, Richard C. Chewning (ed.), CO: Navpress.
- Polanyi, Karl (1977), *The Livelihood of Man*, 박현수 역(1998), 『사람의 살림살이 I』, 서울: 풀빛.
- Schlossberg, Herbert, Vinay Samuel, and Ronald J. Sider (eds.) (1994), *Christianity and Economics in the Post-Cold War Era The Oxford Declaration and Beyond*, MI: Eerdmans Publishing Co.
- Sinnema, Donald, How to Use the Bible in Christian Scholarship, www.iapche.org/insert194.pdf

Christian Scholarship and Widening the Frontier of the Discussion of Christian Worldview: Case of Economics

Summary

Christian Scholarship consists in establishing consistent and systematic structure of perception and interpretation of God's will in a specific field, which is shown in the Bibl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iscussion of Christian Worldview and its activities until now put so much attention on current social issues in a given period of time that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scholarship has been hindered or done partially. The Kingdom of God will be expanded when those specialists and scholars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mediate Bible deeply, establish Christian discipline, develop the contact with the public through the activities of biblical communicators, and widen the frontier of Christian scholarship, influencing on people with Christian worldview.

keywords: Christian Worldview, Christian scholarship, Biblical Economics, Biblical Communicators.